

## 태풍 가고 눈물만 남은 필리핀, 여성직업교육으로 희망 키워요

판자촌 나보타스서 직업훈련 · 화장실 짓기 나서는 이순주 서울국제친선협회장

기사입력 2013.11.19 17:39:53

지난 8일 초대형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국제친선협회 사무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가옥과 도로가 모두 폐허로 변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쏟아지자 불안감은 더욱 고조됐다. 지난 6월 말부터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북부 나보타스시에 건설 중인 여성직업훈련학교에도 같은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1년 9월 제17호 태풍 `네삿`과 제19호 태풍 `날개`가 연이어 나보타스시를 강타하면서 100여 명이 죽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순주 서울국제친선협회장(54·사진)은 "나보타스시는 필리핀 최빈민층이 바다 가장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판자로 집을 지어 만든 해상판자촌이라 태풍 피해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다행히 피해지역이 필리핀 중남부에 그치고 북쪽지역인 마닐라에는 여파가 크지 않아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지었다.

협회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한국과학커뮤니케이터협회와 함께 성금을 모금 중이다.

서울국제친선협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관협력사업으로 `필리핀 나보타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나보타스시 당국의 요청으로 나보타스 빈곤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마닐라에 위치한 UST(University of Saint Tomas University)와 협력해 오는 12월부터는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업도 함께 전개한다.

특히 협회에 따르면 필리핀에 미용한류인 K-Beauty 열풍이 불면서 나보타스시의 빈민 여성들이 미용, 봉제, 요리 등 한국의 기술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 회장은 "현재 공정률 7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센터는 내년 2월쯤 완공될 예정"이라며 "필리핀 나보타스 지역주민들이 재기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나보타스 지역은 과거 50년간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다 폐쇄된 곳으로 지금은 도시빈민들의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다.

이 회장은 "나보타스 주민들은 `떠다니는 집들`이라고 알려진 배로 된 판잣집에서 살며 쓰레기 더미를 뒤져 고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며 "전기는 물론이고 화장실도 없어 각종 전염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지난 2011년 나보타스 현지에서 봉사활동 중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의 요청으로 화장실 2채를 만들어 기증했다. 화장실이 없어 용변을 볼 때 얼굴을 가린다는 수도회의 설명에 이들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나보타스 주민들이 이 화장실을 쉬는 방이라는 뜻인 `CR(comfort room)`로 부를 정도로 소중히 여긴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이들에게 화장실이 유일하게 편안한 공간이라는 게 슬프다"며 "CR를 더 만든다는 소문이 퍼지자, 인근 마을주민 300명의 서명서가 우리가 귀국한 지 사흘 만에 전달됐다"고 했다. 협회는 지난해 봉사단까지 파견해 5칸의 CR를 추가로 기증했다.

[안병준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